

# 북계 타는 가을산 보고 또 보고...



◇묘적봉에서 맞이한 해오름, 해 아래는 풍기와 영주 고을이다.



◇묘적봉에서 바라본 도솔봉, 죽령을 사이에 두고 연화봉과 마주서서 소백산의 남북 줄기를 장엄한다.

## 백두대간 속으로

(23)

### 저수령 → 도솔봉 → 죽령

해마다 봄·가을이면 청명한 날을 골라, 아껴 보던 책들에 바람을 씌어 주시는 한 스님이 있었다. 그 때만큼은 상좌는 물론이거니와 함께 사는 이들도 책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했었는데, 평소에도 스님은 책을 읽을 때 허투루 만지면 바스라지기라도 할 듯 소중히 다루었다고 한다. 이보다 더 지극한 책 사랑이 또 있을까 싶다.

그 스님이 바로 성철 스님이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스님께서 생전에 늘 납자들에게 책 읽기를 경계하곤 하셨다. 그러나 나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스님의 두 태도에서 조금의 모순도 발견할 수 없다. 그것을 나는, '무겁게 구한 지면이 쉬 버릴 수 있다'는 귀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여 새긴다. 일찍이 어떤 애서가들 통해서도, 이후 어떤 학인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을 만나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히 책을 이끼는 차원을 넘어 사물의 궁극에 다가가는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내게 있어 산을 오르는 행위는 책을 읽는 일과 다르지 않다. 채울과 버릴의 동시 작용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명장의 소용에 달는 이익을 구하는 일이 아니기에 더욱 그렇다.

가을 산을 걸을 때는 한껏 해장을 부리는 것도 괜찮다. 그러다 어디 별 좋은 녀력바위라도 만나면, 주저없이 앉아서 온갖 잡동사니 생각들을 넣어 말리며, 개중에 쓸만한 것 몇개만이라도 여물게 할 일이다.

### 위

낙 가파른 고갯마루라서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저수령(底首嶺, 848m)에서 소백산의 험리를 타고 넘는 죽령(97m)까지, 이번 산행의 목표다. 드상 거리만 18km 남짓 되는 그리 만만치 않은 거리다. 그런데 현실인지 이 구간에는 산 이름을 온전히 갖춘 봉우리가 하나도 없다. 하지만 그 속내를 알고 보면, 아쉬울 것도 이상할 것도 없다. 사실상 저수령서부터가 소백산의 품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봉우리의 이름부터가 소백산의 품 안임을 말해준다. 저수령에서 곧장 올라서면 '죽대봉(1081m)'이고 그곳에서부터 하루 해를 바치면 '묘적봉(1148m)', 연이어 '도솔봉(1314.2m)'이다. 도솔봉에서 내려서서 죽령을 지나면 제2, 제1연화봉을 지나 마침내 '비로봉'이니, 이 모든 봉우리가 하나같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향하고 있는 셈이다.

저수령에서 죽대봉까지는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힐 시간이면 충분하다. 때마침 이번 산행은 그름이 가까웠던데다 저녁 노을도 자취를 감춘 늦은 시간에 시작했기 때문에 죽대봉에 올랐을 때 발들은 이미 보실보실 여물어 있었다. 유난히 반짝이며 어둠의 밀도를 높이고 있는 발들과 눈맞춤해 본다. 누운 지

네 인간사에서는 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일상의 폭력성, 역시 문제는 그것이다. 필요 이상의 것, 제 몫이 아닌 것만 탐내지 않아도 다툼의 원인은 거의 소멸될 텐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투구봉에서부터 도솔봉까지는 대체로 원만한 길이다. 우뚝 솟은 봉우리도 깊숙히 내려앉은 하리도 없어서 울퉁한 느낌

는 이쯤에 어울리는 꼭 그만큼의 장엄이다.

때맞춰 도솔봉에 저녁 노을이 걸린다. 놀기도 전에 먼저 빼앗기는 녀. 이미 내 것이 아닌 녀 또한 저 노을 한 귀퉁이에서 수줍게 물든다. 이곳이 만약 어린왕자의 나라였다면, 자리만 조금씩 옮겨 앉아도 오래도록 노을을 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자연의 시간은 털끝만큼의 오차도 없고 내 보폭은 턱없이 짧다.

또 아침, 도솔봉을 앞에 두어선지 소백산의 웅위가 더욱 근사하다. 저쪽도 잘나지 않아서 더욱 아름다운 저 모습, 조화는 자연의 또 다른 이름.

묘적봉에서 바라본 도솔봉은 손 내밀면 닿을 듯 가깝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걸어보면 2시간에 가까운 거리다. 높이와 높이 사이의 숨은 공간을 눈치채기 힘들기 때문이다.

도솔봉의 정상 직정은 꽤나 긴장이 필요한 암릉이다. '도솔'에 이르려면 이 정도의 공은 들어야 하는 듯이, 그러나 도솔봉에서부터 죽령까지는 편안한 내리막이다. 시작 부분에서는 조릿대 숲 두르름을 나누어 받고, 끝날 무렵에는 돌틈에서 흘러내리는 샘물로 갈증 달래면 이내 죽령이다.

글=윤재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 즐이은 봉우리 비로봉 향해 합장

### 도솔봉 '자연의 조화' 설법하는 듯

(1110m). 그곳에서 아침을 맞는다. 아직 비로봉은 아득히 멀다. 도무지 사람의 발길로는 닿을 수 없는 곳인 양. 한 구름을 덮고 누워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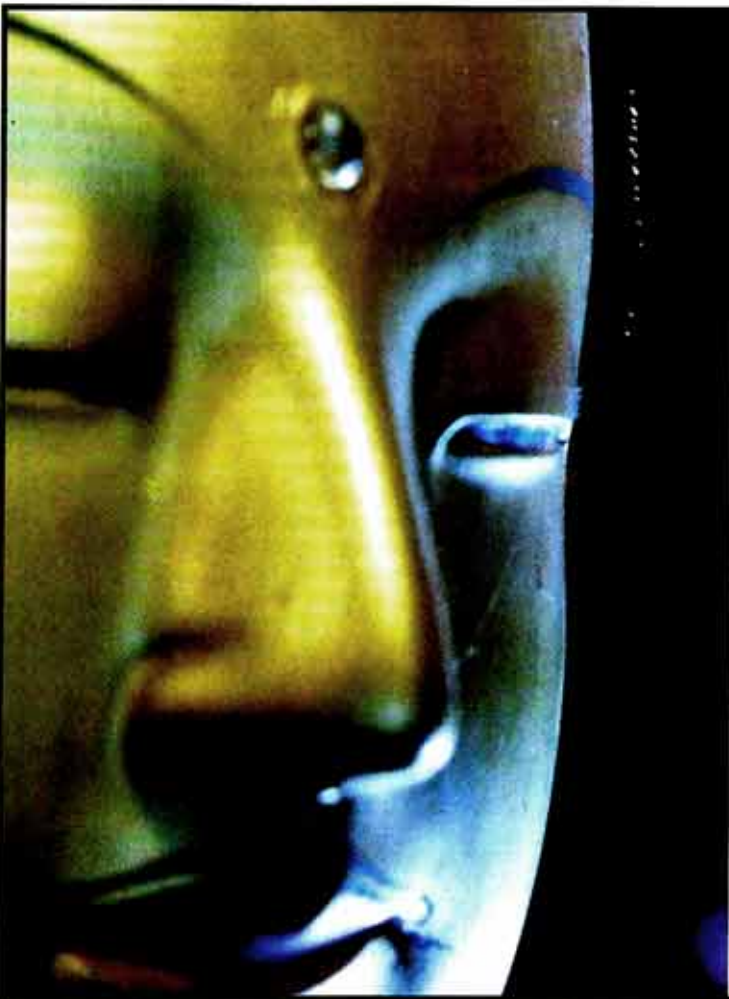
투구봉 주변에는 유난히 투구꽃이 많다. 그 꽃을 보노라니 슬며시 걱력은 생각이 고개를 든다. 만약 전장에서 장수들이, 진브라빛의 저 투구꽃을 담은 양종맛은 투구를 쓰고 적진을 향해 돌진한다면, 과연 싸움이 이루어질까? 결코 그럴 것 같지 않다는 확신이 든다. 그렇다면 우리

은 없지만, 창창한 느낌은 눈부실 만큼이다. 더하여, 드물지 않게 눈에 띄는 마가목의 붉은 열매는 태양의 속알맹이가 딱 지랄했지 싶을 정도의 순일한 붉음으로 눈을 황홀케 한다. 비리만 보아도 자연의 원초적 힘을 나눠받을 것 같아서 보고 또 본다.

이렇게 두리번거리다보니 어느덧 묘적봉이다. 코앞의 도솔봉은 압도적이지만 웅장하나 그렇다고 보는 이의 기부터 꺾고 보는 그런 형국은 아니다. '도솔'이라



◇묘적봉 오름길에 잠시 멈춰선 취재팀.



## 관세음 보살님 우담바라로 나투셨네 청계사 108일 친견 및 무차정진 대법회

청계산 청계사의 관세음보살님 상호(얼굴)에서 3,000년에 한 번 핀다(法華經)는 우담바라 꽃이 21송이나 피었습니다. 우담바라는 전륜성왕이 나타날 때 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 법을 널리 펴고 정진하여 불국정토를 이루라는 거룩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청계사에서 아래와 같이 우담바라 친견 108일 무차대법회를 매주 화요일 및 초하루·지장제일·관음제일에 21분의 원로 대덕큰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108일 동안 용맹정진과 친견대법회를 병행하오니 전국의 불자님들께서는 세세생생 만나기 어려운 이 법회에 동참하시어 참 불법을 깨닫고 속회 성불하는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입 제 일 : 불기 2544년 10월 17일(음, 9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 회 향 일 : 불기 2545년 2월 1일(음, 1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 동참문의 : 청계사 중무소 ☎(031)426-2348, 2221
- 온라인접수 : 109-030451-01-055

(중소기업은행, 예금주: 청계사)

대 조 한 불 교 청계산 청계사 주지 김종상 합장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산 11번지 ☎(031)426-2348 Fax (031)426-3666

